

2009년 1월 19일 월 말씀

목회자들은 현재 있는 곳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이동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잘 봐야 합니다. 배구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여기서 뛰다가 조금 자신 없으면 ‘앞에 가서 뛰자, 후미에 가서 뛰자, 센타에 가서 뛰자.’ 이것을 잘 해야 합니다. 뛰기는 그 안에서 뛰더라도 배치를 잘 해야 합니다.

캠퍼스는 뭔가 패기 있게 확확 밀어붙여줘야 됩니다. 애들이 지도자 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힘이 좋은 애들은 지도자보다 앞에 막 가버립니다. 그렇다고 못 가게 하면 안 됩니다. ‘힘 있게 너희들 달려라’ 하고 지도자들이 앞에 갈 정도가 되어야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연단 받고 단련하고 많이 배워서 확확 밀어 붙어야 합니다. 배우는 학생 중에 천재들이 있으면 못 가르칩니다. 밀려서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기도 천재가 되어야 합니다.

섭리사가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서 ‘새롭게’의 해석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월명동을 새롭게 해서 완전 다르게 개발하듯이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확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낙 인원이 많으니까 전체가 조금만 새롭게 하면 확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체에게 1분씩만 준다 해도 수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과 같이 새롭게 해서 청중을 잘 지도해야지 청중을 잘못 지도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나가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재들 교육을 꼭 시키려고 합니다. 해외선교 부분도 국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인재들 교육시켜 양성해서 여러 가지로 쓰려고 합니다. 말씀도 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구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잘 교정해서 만들어 더 빛나게 해야 합니다. 책 같은 것도 한 번 내려면 20번 넘게 교정해야 합니다. 교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론 같은 것은 교정을 제대로 못했는데 그냥 책으로 냈습니다. 제대로 교정을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내가 다 읽어 본 것이 아니고 일부 보내서 읽고 또 일부 보내서 읽고 하니까 이것이 연결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앞 뒤 연결이 안 되니까 소제목 같은 것도 잘 못 달아놓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잘 교정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나가야 합니다.

직장 다니던 사람은 그만 두면 안 됩니다. 특히 요새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머니 만들어 돈 채우면서 뛰라고 하셨습니다. 잘 못 지도하면 큰 일 납니다. 누가 잘 못 지도해도 안 되지만 자기가 자기를 잘 못 지도해도 안 됩니다. 좋은 직장이면 더 그만 두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길은 사막길을 가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임시적인 도량을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춰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위해 돈도 벌고 선교도 지원해 주고 해야 합니다. 전도자가 지원해주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은 인재들이나 취직되지 일반 사람은 취직이 잘 안됩니다. 직장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요즘은 직장 들어가는 게 고시 보는 것만큼 힘듭니다. 그러니 직장 그만 두고 싶다 생각하는 사람은 다 사연이 있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도를 잘 해줘야 합니다. 지도하기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성경 말씀가지고 지도하고 말해주니까 확확 다른 것입니다. 정신 사상도 다릅니다. 관리 잘 못 하면 안 됩니다.

말로는 전도가 잘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몇 명 된 것 가지고 전도 잘 됐다고 하면 안 됩니다. 배가 운동하면서 확 밀고 나가야 합니다. 옛날 베드로 같은 사람은 강의 잘 해서 하루 삼천 명씩 데려다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고구마를 하나 삶는 것이나 두 개 삶는 것이나 백 개 삶는 것이나 열을 가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열을 가합니다. 하나 삶는 화력이면 백 개 삶아도 다 삶아 집니다. 그렇게 해서 확 밀어붙이고 해야 됩니다. 잔뜩 몰아 붙여서 데려다 놓고 강연해야 합니다. 옛날에 내가 역전에서 그렇게 할 때 백 명 이 백 명씩 몰려와서 강의 할 때 거기에서 수십 명씩 교회 따라 간다고 다니는 교회가 어디냐고 나에게 물었습니다. 한 번에 교회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